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4년 6월 제 **134-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선우경식 초대원장의 삶과 영성, 학술적 조명 가톨릭대의대 개교 70주년 기념, 요셉나눔재단과 공동 심포지엄



지난 5월 21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모습. 가톨릭대 의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선우 선생을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하고, '이 시대 소외된 사람들의 아버지, 선우경식 선생님'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원 초대원장인 선우경식(1945~2008) 선생의 삶과 영성을 학술적, 신학적, 의료복지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심도있게 조명한 심포지엄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렸다.

‘이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버지, 선우경식 선생님’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대 의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요셉나눔재단법인이 공동주최하고 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이학과가 주관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개회사에서 “가톨릭대 의

대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10회 졸업생인 선우경식 선생을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 출장 중인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는 영상을 통한 격려사에서 “선우경식 선생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이 시대 소외된 사



134-1호
주요
소식



1

‘선우 원장 삶과 영성’ 심포지엄



7

병원 소식



12

봉사자 코너



16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영상격려사

“선우 선생,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의 표양”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7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교 7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의과대학과 요셉나눔재단 법인 요셉의원이 함께 선우경식 선생님을 조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뜻깊게 다가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이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버지요, ‘착한 사마리아인’이셨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은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영성이 삶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나자렛의 숨은 삶’을 재현



외국 출장 중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하는 정순택 대주교.

하고자 했던 푸코 성인의 표양을 따라 선우경식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체득하고 내면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길로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자신의 일상을 행려자 등 가난한 환자들과 함께 보내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우려는 구도자처럼 늘 정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우경식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가톨릭 신앙인의 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람들의 아버지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우려는 구도자처럼 정진의 삶을 산 선생은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가톨릭 신앙인의 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선우 선생 삶의 바탕에 푸코의 영성 내재”

이날 행사는 1부 축사와 격려사, ‘내가 만난 선우경식 선생님’ 발표와 함께, 2부 ▲영성가로서의 선우경식 : 샤를 드 푸코의 영성을 중심으로(김평만 신부) ▲제도와 의료의 빈 자리를 메우다 : 선우경식 선생의 전인 치료(박승만 교수) ▲보건 복지 측면에서 본 요셉의원(윤현숙 교수) ▲선우경식 선생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평가(박준양 신부) 등 네 차례의 깊이 있는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및 총평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평만 신부(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는 “샤를 드 푸코의 영성은 신학적 의미나 교의적 측면보다 생활 속에서 나자렛 예수의 숨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평만 신부가 선우 선생의 헌신적 삶의 바탕에는 푸코 성인의 영성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삶을 닮으려고 하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생 가난한 환자를 돌봤던 선우 경식의 삶의 바탕에는 이같은 푸코의 영성을 실천하려는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힘들음을 느끼면서도 그와 같은 나자렛 예수의 숨은 삶에서 복음을 깨달았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김 신부는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나자렛 예수를 따랐다는 점



선우경식 선생님은 신앙인으로서의 표양뿐 아니라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유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질병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관계 단절에서 오는 사람들의 소외와 고독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의료를 실천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고통과 그것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에 더하여 가난한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현대 의료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하지만 현대 의료의 발전의 과실은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가톨릭 의료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제도 밖에 놓인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던 선우경식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효율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여기는 문화는 환자나 노약자 그리고 사회적 취약 계층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데에 일조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거슬러 선우경식 선생님은 ‘인간의 근본 가

치인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 봉사하는 가톨릭 의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사신 선우경식 선생님은 오늘날 평신도로서 복음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현대의 복음선교, 18)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한 복음 선포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평신도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자신의 직업안에서 공동선을 위한 복음선포에 충실하셨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평신도 신앙인의 모범을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기림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선우경식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에 이어 두 번째 대상자로 선정되어, 제가 직접 ‘기림 미사’(2022년 11월 12일)를 봉헌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에서 푸코 영성의 실천가로서 선우경식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우경식, 치료자 아닌 치유자”

두 번째 발제자인 박승만 교수(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이학과)는 “한국 현대 의료의 흐름 속에서 선우경식의 삶은 제도와 의료의 빈 자리를 메우려는 분투의 연속이었다”고 진단했다. “선우 선생은 의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오랫동안 갈등하며 의사의 부재와 제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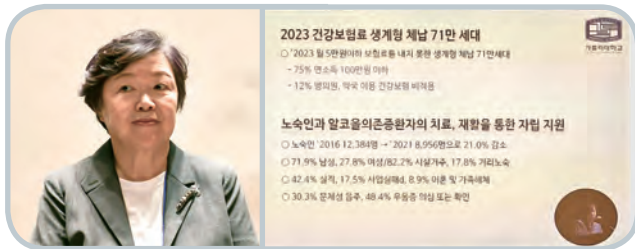
빈틈이 중첩된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답을 찾았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대형병원이 뻗뻗한 서울의 무의촌 안에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사회 그늘 속 빈민층 속에 닳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 박 교수는, 선우경식은 요셉의원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치료자가 아닌 치유자가 되어 진료뿐 아니라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옷가지를 내어놓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한편,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아버지’, ‘쪽방촌의 성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안타깝게도 그가 마주하고 부딪혔던 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며, “제도는 빈틈으로 가득하고 병원엔 전과 같이 인간이 아닌 질병만을 다루는 현실에서 그의 죽음 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새삼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윤현숙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는 보건복지 측면에서 요셉의원의 역할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과 노숙



박승만 교수는, 선우 선생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진료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아버지’, ‘쪽방촌의 성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현숙 교수는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자신을 위한 동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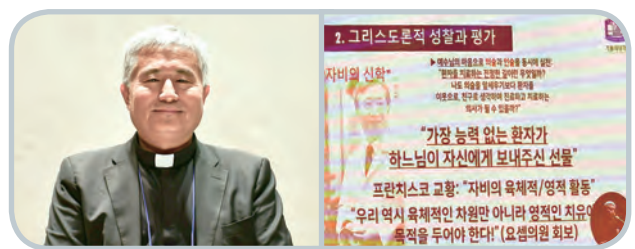
자와 행려자, 건강보험 체납자,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혼합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정부와의 보완 협력관계를 통해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관으로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요셉의원을 이끄는 두 축인 자원봉사자와 후원 확보에 대해 두 가지 제 안을 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이타적 동기 외에 '자신을 위한 동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교육과 훈련, 업무 배치, 적절한 피드백과 보상 등을 통해 봉사자가 자아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경험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후원을 넘어 공적 기금이나 지역사회의 공동모금체, 다양한 복지재단 등으로부터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우 선생의 삶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평가'를 발표한 박준양 신부(교황청 국제 신학위원회 위원)는 “선우경식 선생의 봉사적이며 희생적이었던 삶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삶을 내어 주는 사례’이며,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닮았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신자들의 공경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교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 선생은, ‘성덕은 다름 아닌 충만하게 실천된



박준양 신부는, “선우 선생은 소명을 깨닫고 성덕을 행한 훌륭한 의사이자 신앙의 모범으로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길잡이가 된다”고 평가했다.

사랑'임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음'을 깨닫고 실천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신앙의 모범으로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길잡이가 된다"고 평가했다.

박 신부는 또 “선우 선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며 고민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에게 삶의 참다운 의미와 고귀한 가치를 제시하는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우 선생 시복, 가능하다고 생각”

한편 주제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선우 선생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추대할 수 있는 가치나 방법이 모색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준양 신부는 “개인적으로는 선우 선생님이 신학적으로 충분히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충분히 시복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평만 신부는 “시복시성에는 기적 심사가 따르는데, 요셉나눔재단과 선우 선생을 아시는 여러 지인들 중심으로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는
 총평에서 “한국 교회 신앙의 모범은 순교자들의 영성이 주
 를 이루고 있으나, 이번 십포지엄이 초석이 돼 선우경식

선생의 삶과 영성 또한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서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



심포지엄에 참석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과 동문 및 발표자, 요셉나눔재단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 ①

샤를 드 푸코를 중심으로 -

영성 실천가로서의 선우경식

지난 5월 21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이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버지, 선우경식 선생님'을 주제로 한 가톨릭 대의대 개교 7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선우 선생의 삶과 신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중요한 자료로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 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선우 선생이 샤를 드 푸코(1858~1916) 성인의 영성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1987년 초 요셉의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드러난다. 그때 그는 병원 이

름을 '푸코 의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바가

있다. 또한 선우 선생은 푸코 영성으로 창립된 <예수의 작은 형제회> 한국 재속회 창립시 초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런 점에서 선우 선생님의 삶과 요셉의원의 정신은 푸코 영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샤를 드 푸코 성인은 185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백작 집안에서 태어나 6세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친척들 손에서 양육됐다. 젊은 시절 한때 심하게 방황하다 군인이 된 그는 이후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던 중 이슬람 교도들의 깊은 신심을 보고 감동 받아 자신도 하느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마침내 하느님을 느낀 그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칠 결심을 하고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여 나중에 사제 서품까지 받았다. 그는 알제리 남부 타만라셋 근처 아하가르에서 약 11년간 가난한 이슬람 토착민들과 함께 살며 나자렛 시절 예수의 삶을 실천에 옮겼다.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한 것이다. 수도회를 창립할 뜻도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16년 타만라셋에서 무슬림의 총에 맞아 살해됐다. 이후 그의 영적 수기를 읽고 감동 받은 이들이 1933년 예수의 작은형제회를, 그리고 1939년에 작은 자매회를 설립했다. 푸코 신부는 2005년에 시복이 됐고, 2022년에 시성되었다.

푸코 영성의 핵심은 '주님과 똑같이'

샤를 드 푸코 영성의 핵심은 '주님과 똑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나자렛 시절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비천한 생활을 하며 자기를 낮추고 형제애를 실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나자렛의 숨은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방식에 영성의 특별함이 있다. 그러나 그 숨은 삶은 세상으로부터 숨은 관상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으로 숨는 것을 핵심 모체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은 바로 노동으로 연결 된다.

푸코 성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항상 하루 8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어떤 소유물을 나누거나 복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을 선포했다. 푸코는 사랑하는 상대방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 생활고 등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푸코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매우 어려운 영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선우 선생의 헌신 밑바탕 이론 내적인 동인

선우 선생은 푸코의 영성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 그가 푸코 영성을 접하게 된 것은 예수의 작은 형제회 고인수 신부(Vincent Corpet 1924~2016) 신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한 주홍

김평만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1933~2008) 신부와의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작은 형제회 사제들과의 지속적인 교분과 작은 형제회의 재속회 활동을 통해 체화된 푸코 영성은 선우 선생

이 의사로서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요셉의원에서 가난

한 환자를 돌보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내적인 동인이 되었다. 그는 푸코의 영성을 내재화해 자기 성찰과 복음 묵상, 기도 등 보이지 않게 영성 생활에 몰입했고, 밖으로 이를 실천해나갔다.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구 꺼려하고, 상을 받을 때도 가능하면 인터뷰를 사양하고자 했던 것도 푸코와 같이 나자렛 예수의 숨은 삶을 지향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요셉의원에서 현장 체험을 했던 신학생들은 선우 선생이 푸코 성인에 관한 책을 몇 권씩 건네줬으나 푸코 성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교자 한 것이다.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자신을 수련하는 예수의 작은 형제들에게도 '숨은 삶'은 쉽지 않다. 세속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들이나 세속의 영광, 비본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투쟁 같은 도전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선우 선생 역시 그런 도전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눈길과 태도를 체험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덕생활 즉, 신앙생활을 해왔다. 고인수 신부에게 보낸 자기 성찰문 중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이웃 형제 자매들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말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멀리한다'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에게 가차 없는 칼날을 들이대며 스스로를 다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그와 접했던 사람들은 선우 선생에게 환자를 보내겠다고 말하면 한 번도 '노(No)'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회고한다.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 '나자렛 예수'의 삶 채워

선우 선생의 수첩과 메모, 일기장을 보면 그가 매일 꾸준히 복음 묵상을 실천하고 성체조배를 생활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의원에서 성서 백주간을 직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선우 선생은 외국에 가서도 빠짐없이 자신의 복음 묵상을 팩스로 보내오곤 했다. 또한 매일 묵주기도 40단을 바쳤다는 사실도 여러 사람이 증언한다.

선우 선생은 또한 진료실 겸 원장실에 푸코의 '위탁의 기도' 액자를 걸어놓고 자기비하(自己卑虛)의 삶을 새기며 살았다. '위탁의 기도' 끝부분에는 '하느님은 내 아버지 이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 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기도문처럼 그는 의사로서의 부와 명예와 욕망 등을 모두 버림으로써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나자렛 예수'의 삶을 채움으로써 푸코가 지향했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보듬는 예수의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우경식 선생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자 했던 것은 그의 훌륭한 성품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성품과 더불어 그가 푸코 영성의 자양분을 통해서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잉태하고, 그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선포하는 소명을 살아가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





쪽방촌 향기

“‘내가 환자라면...’ 입장 바뀌서 진료합니다”

“내가 노숙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나이 든 노숙인이면 의사 선생님이 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약 처방과 치료를 해드린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개원 전에 인생에서 마지막 긴 여행이다 생각하고 세계 일주를 하던 때, 베네치아에서 우연히 우크라이나 알코올중독자센터에서 봉사하는 한국인 청년을 만나 같이 곳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 청년은 내가 의사인 걸 알고는 자신이 일하는 센터에 일주일씩 단체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한국 의료진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던 기억이 난다. ‘짧게 올 거면 오지 말지’라며, 센터를 총괄하는 선교사님은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속내가 보여 화난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짧게 갈 거면 가지 말자’.

한편, 해외에서 의료봉사하시며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약품 지원 및 금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뜻은 좋은데 돈이 없으니 매번 저렇게 돈 구하러 나오시는 것도 참 힘들겠다 싶었다. 그때 생각했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자.’ 그리고 ‘외국 나갈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서 봉사하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 보니 이곳 요셉의원을 알게 되어 직접 전화해 방문하고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벌써 햇수로 7년째이다.

사실 저녁 6시까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마치고 영등포까지 가려면 강남 퇴근 시간을 뚫고 올림픽대로 막히는 길에 간헐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진료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 표현해 주고 90도로 인사하고 나가시는 모습에, 지금

강남 진료현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보람이 있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볍다.

또 요새는 직접 기증한 레이저로 환자분들 발바닥에 티눈이나 큰 사마귀들을 제거해 주고 있는데,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없애 주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 편평 사마귀나 피부 요철 제거는 배우분들에게나 시간 따로 내서 해주던 시술이고 지금은 일반환자들에게 해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살이 타는 연기 맡아가며 환기도 제대로 안 돼 옷에 냄새가 빠지지 않아도 보람이 있다.

가끔 이곳에는 조현병 환자들도 오시기 때문에 간혹 진료실에 간호사분이 바빠서 동석하지 못하면 진료 중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하곤 한다. 또 갈 때마다 진료받으러 오던 분이 얼마 전까지 계셨었는데 요즘은 안보이셔서 궁금하지만, 굳이 간호팀장님께 물어보진 않는다. 물어봤다가 좋지 않은 소식 들을까봐 일부러 안 묻는다.

구용수

본원 피부과 봉사의
닥터구의원 원장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노숙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나이 든 노숙인이면 의사 선생님이 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약 처방과 치료를 해드린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언젠가 서울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조금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중이다. 30분 정도로 가까워지니 택시 타고 다니면 되겠다 싶다.

힘이 닿는 한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2024년 상반기 직원 워크숍 실시 -MBTI/TA 분석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역량 관리



서울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에서 실시한 상반기 직원 워크숍 장면.

요셉나눔재단법인인은 지난 6월 8일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격을

판별하는 마이애스-브릭스 유형지표(MBTI)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별 나눔을 실시했다. 정운식 기획행정실장은 "개별 MBTI 유형 및 TA 교류분석 예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원은 특성상 업무가 밤 늦게 끝나다 보니 직원 간 소통의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이번 워크숍은 상호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을 얻었다.

노재경 봉사의에게 5년 봉사 감사장 전달

본원 내과에 진료를 나오는 노재경 봉사의(이화내과의원)가 이번 5월로 5년 동안 진료 봉사를 기록하게 돼 고영초 병원장이 지난 5월 13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울 서초역 부근에 있는 이화내과 의원은 여성 원장 3명이 운영하는 소화기 전문 의원으로, 이곳 김보경 원장도 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나오고 있다. 김보경 원장이나 노재경 봉사의 모두 가톨릭 신자로,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 호응이 높다. 노

봉사의는 "거창한 소명의식이라기보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도와드리는 정도"라며,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개 만성질환자들인데, 제발 잊지 않고 제때 약을 타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세령과 의료지원 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5월 24일 재단법인 세령(이사장 박규홍)과 사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1차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영초 병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본원을 찾는 안과 환자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빛안과병원을 이끌고 있는 박규홍 이사장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 재단법인 세령을 설립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요셉의원의 숭고한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기 ‘의사 선우경식’ 영문판 발행 추진



요셉나눔재단은 6월 21일 본원 초대원장 선우경식 선생의 전기 ‘의사 선우경식’의 영문 번역본을 발행하기 위한 번역 및 감수 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이번 영문판을 오는 11월 7일~1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대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 의사들에게 배포해, 선우 선생의 헌신과 신앙적 실천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영문판 번역은 중앙대 국제

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정재혁 교수가, 감수는 메건 테일러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10월 말 출간할 예정이다.

“진료 확인서, 7월부터 1층 원무팀에서 신청하세요”

본원은 방문 진료 업무 활성화와 내원 환자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7월 1일 자로 ‘방문진료실’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 새로 신설된 방문진료실은 쪽방촌 등에 기거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 은둔 환자 등을 찾아가 진료와 건강 검진 및 필요시 상급 병원 전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간호팀 소속으로 영등포 쪽방촌 주변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방문해 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보살펴온 한진희 신임 방문진료실장은 “검진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흔쾌히 합류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움에 힘입어 방문 진료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의무기록팀을 방문진료실 산하 원무팀으로 개편하고, 의료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화했다. 원무팀은 간호팀에서 수행하던 진료확인서 등 서류 발급과 함께 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본원에 등록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신학생 4명 현장 실습 마감

박민수 신학생(가밀로, 청주교구)이 지난 2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3개월 간 본원 현장 실습을 끝내고 5월 23일 저녁미사 말미에 짙막한 송별 인사를 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줬던 가밀로 신학생은 진료 보조와 환관 안내, 아웃리치, 기록물 관리 보조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업무를 도왔다.

박민수 신학생은 “환자분들에게 잘해 드리려고 하다가 화를 내고 욕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저도 속에서 똑같이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럼에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을 통해 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수 신학생에 이어 수원교구 박제준(스테파노)·윤수영(이나시오) 신학생과, 광주대교구 류동제(그레고리오) 신학생이 각각 3~4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고 6월 하순에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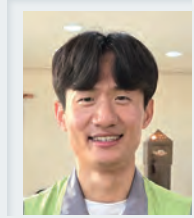


신학생 현장체험 소감



‘걸음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찬미 예수님! 청주교구 내수본당
신학생 박민수 가밀로입니다. 저는
2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요셉의



박민수 가밀로
청주교구 신학생

원에서 실습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느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간호사 선생님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쪽방을 방문하면서, 진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입원 혹은 의원 방문을 권유하며 반찬을 나눕니다. 주민 중에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되레 언성을 높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대화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으로 주민에게 화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달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그런 그들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아직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면 되겠지만, 세상 안에서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은 희망과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하느님을 향한 삶,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걸음으로만 친절, 사랑,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부님, 수녀님, 모든 선생님 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우경식 선생님처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나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수원가톨릭대학교 신
학생으로서 학부 과



박제준 스테파노
수원교구 신학생

정을 졸업하고, 약 1년 정도의 실습 기간을 보내고 있는 박제준 스테파노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요셉의원’을 첫 번째 실습지로 선택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의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셉의원은 초대 원장님의 이념과 사명을 이어받아, 가톨릭 신앙의 핵심 가치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관한 관심과 돌봄을 실천하며,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실습하면서 저는 이곳 가난한 분들의 복합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원 직원들과 봉사자분들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그런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봉사활동뿐 아니라 후원을 통해 함께 요셉의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병원의 모든 활동은 이웃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으로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제의 역할이 단순히 미사 집전과 성사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공동선’과 ‘보편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봉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와 ‘울림’은 제가 앞으로 사제로 나아가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나에게 예수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이웃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고립된 삶을 해소하고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목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저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풍성한 가르침을 주신 사무총장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의지와 믿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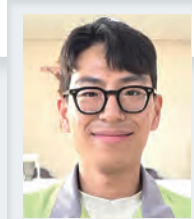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의원을 다녀간 선배 신학생들의 말마따나 요셉의원에서의 실습은 좋았습니다. 단순히 ‘좋다’를 넘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활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 아래 설립된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며, 보람찬 마음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것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 간단한 진료를 봐 주기도 하고, 도시락과 반찬도 나눠주며 매주 목요일이면 식사도 대접해 드립니다. 저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분들에게서 더 나은 여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의가 느껴지지 않을 때면 막막하고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데, 그들은 수급 날이 되면 술을 마시며 이웃들과 싸우고 담배 피우며 거리를 누빉니다. 그럴 때면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인가? 술 마시지 않고 요셉의원에 와서 치료받는 일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우경식 선생님의 전기를 읽으며 알 수 있었던 것은 선우경식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우 선생님은 늘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분 안에는 인간적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우 선생님이 항구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의지와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 선생님 삶의 바탕을 이루었기에, 그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노력은 그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대단하지 않을뿐더러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이 때로는 부질없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제 삶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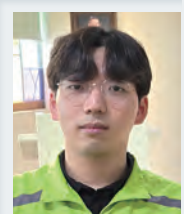
‘가난한 이들에 대한 형제적 관심 지속해 나갈 터’

신학교 2년과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까지 이곳 요셉의원에서 4개월간의 실습을 하게 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보면 큰 포부와는 달리 저의 의지는 한참 부족했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부르고 당신께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을뿐더러 제게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맞아드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원원의 많은 분들이 공동 시간전례와 미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느님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매우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쪽방 방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현 대사회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 소외와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우려를 표하시면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셉의원원의



윤수영 이나시오
수원교구 신학생



류동제 그레고리오
광주대교구 신학생



방문은 다른 병원들처럼 오는 환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서는, 지극한 관심을 쏟는 활동이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의 다양한 실습과 경험들은 제게 많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습 기간 중 성직자성 문헌 '사제 성소의 선물'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사제는 도덕적 습관의 겉치레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동을 함께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셉의원에서 실습할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라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대했을까 아니면 그저 도덕적 습관의 겉치레였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후자일 때가 훨씬 자주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4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저 자신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스도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동화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형제적 관심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사제 성소의 길에서 형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느님과 저에게 형제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요셉의원을 찾아주신 모든 환자분과 꼭방촌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환자스토리



가정 폭력으로 이혼하고 그늘진 삶 살아온 임상원 환자

“아내와 딸들 만나 용서 구하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데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임상원 씨(62)는 2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딸 셋과 헤어진 뒤, 최근 들어 부쩍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그때가 30대 후반 나이였지요. 그날따라 안 먹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그만 손찌검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마무리가 됐을 텐데 고집을 부리다 서로 상처를 안게 됐지요.”

임 씨는 IMF 환란 무렵 이혼을 하면서 집을 판 돈 수억 원을 모두 아내에게 주고 서울로 올라왔다. 아내 역시 살던 지방에서 딸 셋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생업을 꾸렸다. 임 씨는 그뒤 가리봉동에서 거의 20년 동안 노동 일을 하며 지냈으나, 그동안 헤어진 아내와 딸들과의 만남은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사람 마음이 참 모진가 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마음 한 구석에는 아내에 대한 원

망 비슷한 것이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 새벽 노동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이든 청소든 아무 일이나 해서 일당을 받으면 잘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게 됐다. 그러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자다보면 간혹 신발까지 벗겨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한강변으로 가서 소주 서너병 마시고 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몸이 비틀거려 ‘결행’을 못하고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깨어나보니 노숙인 상담보호시설인 영등포 웅달 샘드롭인센터였다. 그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영등포 쪽방촌에 세를 얻어 ‘영등포 생활’을 시작했다. 본원에 찾아와 혈압약과 다리 통증 약 등을 타가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주변에서 딸들도 있다는데 왜 안 찾느냐는 얘기를 듣다 보니 옛 기억과 회한이 떠오르더군요. 올 가을쯤에는 헤어진 아내와 가끔 연락을 한다는 동생을 찾아가 아내와 딸들의 근황이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무릎 위에 앉히고 ‘누구에게 시집갈래’ 하고 물으면 ‘아빠한테 갈거야’라고 대답하던 큰 딸이 눈에 선하다”며, “딸들이 자식을 팽개친 애비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는 싫다”고 담담히 말했다. +



봉사자 코너



《의사 선우경식》을 읽고 소감 편지 보내온 쪽방촌 봉사자 류 마리스텔라 수녀

“선우선생님! 당신은 돌아가셨으나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쪽방촌 신자 모임 행사에서 봉사하는 마리스텔라 수녀와 모니카 봉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노틀담수녀회 소속 마리 스텔라 수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셉의원에서 모니카씨와 함께 쪽방 방문 봉사를 하는 수녀입니다. 지난 4월 16일 명동에서 열린 선생님의 ‘16주기 추모미사 및 전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선물로 받은 《의사 선우경식》 책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책 앞 머리에 쓰인 ‘쪽방촌의 성자, 요셉의원의 설립자’라는 타이틀이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윤영이 어려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에 함께 가슴 조였고, 또 위기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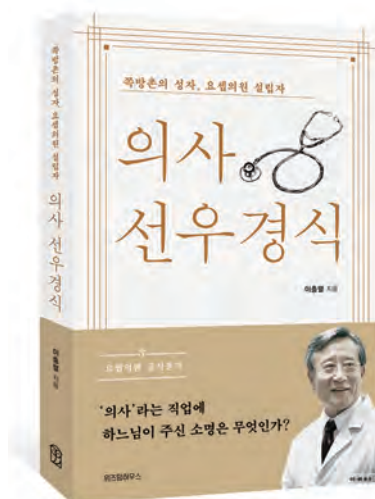
선생님은 정말 굵고 짧은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잘 준비되었기에 주님이 불러 가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쪽방 방문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쪽방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분들의 숭한 삶의 굴곡들을 말이죠.

쪽방 방문에 함께 하셨던 마리안나 수녀님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기도 등으로 잠시 술을 끊고 너무 멋진 필체로 성서쓰기를 해오던 형제님! 그러나 잘 버티다가 일순간 술에 굴복해 무너져 헤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제 몸 하나도 휠체어에 의존해 살고 있으면서, 자살하려던 노숙인 자매를 자기 쪽방에 데려와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살아갔던 천사 자매님! 쪽방에 살지만 방문하면 꼭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는 형제님! 어릴 때 시설에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많이 맞은 후유증





으로 깜빡 깜빡해 기억을 못 한다는 자매님!

캔을 주워 판 돈을 모아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하는 ‘귀여운’ 기부자 형제님! 길에서 만난 노숙인 형제가 “수녀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이렇게 살지 않고 평범하게요...” 하고 말하던 간절한 눈동자!

온갖 병을 다 가져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는 중학생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찾아다니며 치료하는 아빠!

지극정성 간호하고 음식은 꼭 만들어 먹이며, 스트레스가 만만찮은 아들의 투정과 요구 등을 다 받아들여 채워주느라 개인의 삶은 온통 버린 지 오래된 아빠의 슬프고 고뇌에 가득한 모습.

거의 20여년간 지병으로 보행도 겨우 하지만, ‘부처님 미소’란 별명으로 늘 자비의 미소를 잃지 않고 방문 때마다 받은 간식과 활력을 나누어 주는 형제님. 만취된 상태로 거친 말을 내뿜다가도 우리가 방문하면 “아이쿠 큰 어머니, 작은어머니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좀 취했습니다...” 하며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형제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치료와 사랑을 받았다고 회상하며 눈물 글썽이던 형제자매들...

선생님, 이렇듯 가슴 미어지는 사연을 지닌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저희가 힘 되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지만 쪽방 방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지친 삶에 위로가 될까 싶어 온 마음으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합니다. 부족하나마 그분들의 삶에 작은 기도의



류 마리스텔라 수녀가 쪽방 독거 노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축복을 얻어봅니다.

선우선생님! 당신은 돌아가셨으나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뜻한 마음과 그들을 위한 온 삶의 열정과 봉헌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 고스란히 전달되어 이리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며 재촉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돌투성이 흙이었던 불모지 땅에 온 젊음을 바쳐 이 길을 만드셨기에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 걷는 흥내를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아무도 그들 편이 되어 주지 않는, 목소리 작은, 외로운 그들을 위해 길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느리고 작은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들 곁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선우 선생님,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후원의 손길



본원에 정기 후원하는 월정사 도광 스님

“아름다운 일 하시는 분들 위해 작은 정성 보탭니다”



원을 찾아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원에 후원을 시작한 오대산 월정사 도광 스님(63)은 “요셉의원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 참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끄럽지만 작으나마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 스님이 천주교 복지시설에 후원을 한다는 점이 좀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언젠가 신도분께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 된다고 해서서 유튜브에서 요셉의

에 대해 도광 스님은 “불교나 그리스도교를 포함해 여러 종교에서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비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자비”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실제 예전 한 스님은 본원에 탁발을 하러 왔다가 본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는 바랑에서 시주 받은 돈을 꺼내 선뜻 후원금으로 건네주고 간 적이 있다. 도광스님이 본원에 관심을 갖고 후원까지 하게 된 것은, 그 자신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픔도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속세에 있었던 30대 시절, 그는 요식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잘 키워나갔으나 화재로 그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방황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도 나가봤더니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저를 핵심멤버로 삼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다녔으나 모두 뿌리치고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계를 받은 지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 도광스님은 현재 월정사 불교TV 책임을 맡으며, 릴레이 염불 4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새벽과 낮, 저녁에 모두 4시간 반 정도 염불을 한다. 염불은 불교의 기본 수행법으로 일종의 기도와 같다.

“전에는 전국으로 탁발 수행도 다니다 이제는 경을 읽으며 마음을 닦고 있는데, 예전의 모든 어려웠던 일이나 과정이 있었으니 지금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광스님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나중에 이승을 떠날 때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요셉의원에 기증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4년 4월~5월)



■ 요셉나눔재단

●강현미 ●고철호 ●고행일 ●구연철 ●김석복 ●김성수 ●김성희 ●김아람 ●김 영 ●김재수 ●김지현 ●김평수 ●김필서 ●김형배
●김효정 ●노미수 ●노현석 ●노희선 ●민미숙 ●박규태 ●박남규 ●박성희 ●박수학 ●박종민 ●박종연 ●박준하 ●박지현 ●박 현
●박현주 ●박화옥 ●배광철 ●배현덕 ●서금옥 ●서상범 ●서수완 ●서종규 ●손은진 ●손준성 ●송상희 ●송신한 ●송은희 ●송지영
●신연주 ●신오성 ●안승현 ●엄항섭 ●오 백 ●오승협 ●우미경 ●원우식 ●유현세 ●윤만호 ●윤민재 ●이공흠 ●이명진 ●이민정
●이방미 ●이은별 ●이자희 ●이재필 ●이정섭 ●이춘화 ●장세원 ●장요엘 ●장정순 ●장현주 ●전구호 ●전어진 ●정수경 ●정수정
●정하상 ●조경식 ●조경주 ●조승희 ●조영철 ●조은아 ●진흥석 ●최명환 ●최수영 ●최요안 ●허수정 ●홍종운 ●황상준

■ 요셉의원

●CHEON JIN YOUNG ●SHEN CHUNHUA ●강대진 ●고일호 ●고혜진 ●곽영미 ●곽용구 ●곽은정 ●구미라 ●권보람 ●권성철
●권유진 ●김경숙 ●김광자 ●김기윤 ●김다운 ●김덕중 ●김도경 ●김도연 ●김도는 ●김동진 ●김미겸 ●김미수 ●김민서 ●김범준
●김서현 ●김선배 ●김성민 ●김성환 ●김소영 ●김순자수산나 ●김연진 ●김연희 ●김영혜 ●김용복 ●김윤정 ●김은주 ●김인덕
●김인환 ●김재봉 ●김재화 ●김종남 ●김종범 ●김미혜 ●김준모 ●김지혜 ●김진영 ●김하은 ●김혜경 ●김혜수 ●김혜진 ●김혜현
●김호경 ●김희범 ●나다은 ●남일우 ●노민지 ●노원석 ●문성만 ●문영진 ●문희제 ●민지원 ●박길홍 ●박민규 ●박병훈 ●박보현
●박유미 ●박윤수 ●박인숙 ●박인숙 ●박정완 ●박주미 ●박지훈 ●박훈영 ●방춘자 ●배은미 ●비 오 ●서지영 ●서 휘 ●손기성
●손나영 ●송채영 ●송효미 ●신민승 ●신용표 ●신인숙 ●신향미 ●신형식 ●안성은 ●안승준 ●양경화 ●어수향 ●여유담 ●오유진
●오태준 ●오혜경 ●온화스님 ●요 셉 ●원찬연 ●유니버스 ●유미진 ●유승민 ●유정훈 ●유지영 ●유찬희 ●유채은 ●윤선중
●윤소정 ●윤승현 ●윤우열 ●윤정용 ●윤진혁 ●윤태동 ●윤혜미 ●이가는 ●이건표 ●이경민 ●이득풍 ●이미선 ●이미정 ●이민혁
●이범진 ●이병수 ●이상현 ●이상형 ●이상호 ●이선희 ●이성숙 ●이성일 ●이수영 ●이수진 ●이수형 ●이승윤 ●이시연 ●이연옥
●이영림 ●이영목 ●이영선 ●이예림 ●이유리 ●이윤아 ●이윤아 ●이윤희 ●이은경 ●이정선 ●이주미 ●이주원 ●이채아
●이한나 ●이한주 ●이현희 ●이혜영 ●이혜원 ●이혜진 ●이효원 ●인테리어모유 ●임인숙 ●임효진 ●임희연 ●장동민 ●장주영
●정고운 ●정민지 ●정범진 ●정선옥 ●정세진 ●정수임 ●정옥빈 ●정완철 ●정용주 ●정우석 ●정인식 ●정현진 ●정혜승 ●정희경
●정희윤 ●정희정 ●조경미 ●조경호 ●조명재 ●조미경 ●조옥진 ●조용민 ●조은희 ●조정현 ●조충현 ●주수희 ●진흥석 ●차소연
●채은정 ●천유영 ●최미리나 ●최민경 ●최보규 ●최보라 ●최서윤 ●최성원 ●최용순 ●최정열 ●최정희 ●최지현 ●최현수



- 최형민 ● 추주호 ● 피선영 ● 하인천 ● 하정현 ● 한기남 ● 한복규
- 한연재 ● 한정숙 ● 허대혁 ● 허윤정 ● 허정윤 ● 홍미영 ● 홍석주
- 홍수지 ● 홍영아 ● 홍용선 ● 홍주의 ● 황보민주 ● 황선주 ● 황윤지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4년 4월~5월)

■ 요셉나눔재단

- (주)삼성센타 ● YOOKAYDEN ● 삼각지성당 ● 서울고15회 ● 시스템원 주식회사 ●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 요셉의원

- (주)플렉스월 ● 동탄연세세브란스치과의원 ● 세종종합PVC ● 신도림성당
- 우현전기(주) ● 주식회사 메인라인 ● 주원테크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4년 4월~5월)

- 강신걸 · 김선화(피스오브헤븐 마포구) : 빵, 유기농 롤케익 각 1상자
- 김경숙(음성) : 두유 2상자 ● 김인섭 : 죽염(마늘)두부과자 10상자 ● 김채경
- 안나(대방동 성당) : 쌀 10kg ● 꿀벌유치원 : 쌀 100kg ● 목5동성당 : 부활계란
- 2상자 ● 안세영(행복공학재단 논산지점) : 쌀 20kg ● 양천성당 : 과자 140봉지
- 익명 : 쌀 50kg ● 정혜라(오늘 기정떡) 떡 1상자 ● 조승희 루시아 : 들기름 1병,
- 봄나물 등 1상자 ● 한몽술 빵 100봉지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4년 4월~5월)

- 김형욱 : 양말 30켤레 ● 남 * 수(관악구) : 의류 1상자 ● 목5동성당 : 신발 3상자
- 박 * 설(부산시) : 의류 1상자 ● 서상력 : 의류 1상자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 의류 8상자 ● 유정 * (장수군) : 의류 2상자 ● 윤 * 경(안산시) : 의류 1상자
- 윤 * 숙(화성시) : 의류 1상자 ● 이 * 익(송파구) : 의류 1상자 ● 이경순 : 의류
- 3상자 ● 이신조 : 양말 30켤레 ● 장 * 기(인천) : 의류 1상자 ● 정영미 미카엘라 :
- 모자 16상자 ● 주경수 : 의류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4월~5월)

- 오시영 외 : 프로바이오틱스(진유유산균) 외 1종 ● 이경옥 : 미니텐텐츠헤
- 10봉지 ● 인간의 대지 : 프로바이오틱스(시너지컷) 외 2종 ● 제일한방 : 한방파스
- 하나제약 : 다이리드 외 28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4월~5월)

- 김태우 : 문구류 1상자 ● 배관랜드(정종재 프란치스코) : 샴푸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본원 인사 발령

■ 방문진료실(7월 1일부 신설)

- 실장 겸 팀장 : 한진희
- 원무팀장 : 김정순
- 방문진료팀원(겸직) :
김정애 박상욱 홍정우 우현철 홍석만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홍완기(정형외과)
이정욱(안과)
박준성(안과)
김남현(통증의학과)
- 약 사 : 노수정 우연숙
- 치위생사 : 서유정
- 임상병리사 : 박주현 오영아 이소영
- 방사선사 : 이고운
- 상담팀 : 강순희(6월 중순부터)
- 신학생 현장체험 :
청주교구 김지수 (사도요한 6/11~11/24)
- 일반 봉사 :
[주방봉사] 3명
[약제팀] 덕성여대 2명 동국대 2명
이화여대 3명
[치과팀] 4명
[청소봉사] 16명
[목요급식봉사] 도림동성당 17명
세종로성당 3명 외 6명
[아웃리치] 도림동성당 12명,
연대의청 등 연세대 16명
[쪽방방문팀] 2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윤승현(쌀) ● 종로 주민(쌀)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4년 4월	1,462 명
2024년 5월	1,383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4년 5월 말 현재)

753,304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24.04~05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와서 보아라!” 성가소비녀회 수녀, 2주간 실습 실습 중 구치소와 교도소 외부 진료 체험



어린이 무료 급식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자리를 함께한 성가소비녀회 한나 수녀(맨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와 아나뵘 수녀(네 번째).

2주간 진행됐던 성가소비녀회 소속 한나, 아나뵘 수녀의 필리핀 요셉의원(이하 본원) 실습이 지난 5월 31일 무사히 종료됐다.

1943년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에 의해 창설된 성가소비녀회는 강생의 영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수도회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당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강생’이란 단어와 같이, 본원을 찾은 성가소비녀회의 두 수녀도 주거와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찾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 두 수녀는 본원 실습 동안 현지 어린이, 감옥에 갇힌 이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만났다.

실습 기간 중 평일 오전에는 급식을 받으러 본원을 찾는 어린이들을 환대하며 돌봤고, 술래 잡기 놀이 등을 하며 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평일 오후에는 본원에서 진

행하는 주택 지원 사업 지역(Catmon, Letre)의 가정을 방문했다. 두 수녀는 장마로 침수된 집주인의 고충을 듣고, 화장실조차 없는 집을 둘러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의 어려움을 확인하기도 했다. 현지 방문 조사 뒤에는 어떤 집이 사업 대상에 우선하여 들어야 하는지를 선별하기 위해 천장의 누수, 가족 구성원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에는 본원 원장(김다솔 야고보 신부), 서울대교구 실습 신학생 2명(이범상 사도요한, 이윤석 라파엘)도 함께 참여했다. 주거 개선 지원 사업 가정 선정은 이 회의에서 나온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치소와 교도소 방문 진료 체험

실습 중 이틀(5월 28일~29일)은 인근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외부 진료 체험을 했다. 두 수녀는



본원 원장 신부, 의료팀, 실습 신학생과 함께 약 150명의 수용 환자를 위한 약 처방을 도왔다. 이들은 진료 중인 수용자들에게 따스한 시선을 보내며 인격적으로 보듬어줌으로써 잔잔한 호응을 얻었다. 실습 중 하루(5월 27일)는 본원 원장 신부, 의료팀, 실습 신학생과 함께 상황이 좀 더 열악한 인근 지역(Navotas East)의 공소를 찾았다. 열 사람이 들어가면 딱



두 수녀는 인근 공소에서 진행된 의료 지원 행사에도 참여했다.

차는 비좁은 작은 공소였지만, 두 수녀는 본원 간호사를 도와 약 처방을 돕고, 70여 명의 방문 환자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두 수녀는 본원 실습 소감을 다음과 같이 각각 밝혔다.

“‘와서 보아라’라는 말씀의 체험을 허락해 주신 은총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고군분투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강 한나 수녀)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다양한 형태의 가난은 늘 우리 일상 안에 존재합니다. 가난을 대하는 저의 시각과 생각 그리고 제 안에 쌓인 가난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장 예수의아나뵤 수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본원의 이념과 같이 두 수녀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인류 공동체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 기도가 가득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방학 기간에 영·수 집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집중 프로그램 수업 장면.

지난 6월,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장학생 초등부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주일과 평일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를 진행했다. 이번 집중 교육 프로그램은 학기 중

주일마다 장학생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들을 여럿 발견해 그 보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학기 중 주일 수업 결과 같은 장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발생했고, 한 주에 한 번 모여 수업을 하다 보니 지난 주에 가르친 내용을 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김다솔 원장신부와 교사회는 주일 수업 내용을 체화할 시간과 수준별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협의를 통해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집중 교육 프로그램은 최초 레벨 테스트를 통해 장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하고 단계를 나누었으며, 교사회 교사들이 각각 한 단계씩을 맡아 수업을 진행했다. 신학생들은 특별히 수업 참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맡아 지도했



복음 묵상

“개천에서 용 나기”

이 사업은 오늘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 미래를 보는 사업입니다.

필리핀 사회는 무척 경직되어 있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들의 삶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고, 비슷한 밥을 먹고, 취미랄 것도 없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누르거나 간단한 소일거리로 때웁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눈에 띄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주변 환경이 나아진다는 희망도 딱히 없습니다. 그저 지저분하고 빈곤한 환경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의 기쁨과 행복은 있겠지만 제 3자로

다. 주일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학생들의 수업 태도, 성취도 등을 평가하여 특별히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단계를 재조정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수준 별로 설계된 수업에 한층 더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어 마냥 즐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린이반을 맡은 교사들은, 이번

장학생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방학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커리큘럼을 세밀히 다듬어 나간다면 장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의 포석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

장학생 공동체, 성공적인 커뮤니티로 정착돼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에는 요셉의원 초등부, 중고등부 장학생들을 위해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장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캠프가 있었다.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 교사들은 요셉의원에 머무르며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놀이공원을 가는 등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리더십 캠프를 계획할 때부터 설레는 모습을 보였던 참가자들은 기대 못지 않게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김다슬 원장신부는 2022년 요셉의원에 부임한 이래로 많

멤버십 트레이닝(MT)에 참가한 장학생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큰 미래, 스스로의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이 무척이나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요셉의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동시에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의 초대 원장이신 최영식 신부님께서 시작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장학사업이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학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학업을 보조하기 위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영어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매주 두 시간씩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능력을 갖추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한 작은 씨앗입니다.

이 사업은 오늘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 미래를 보는 사업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학업을 돕고, 공부를 통해 꿈을 꾸도록 장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희망을 품고, 희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셉의원의 역할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의 작은 발돋움에 요셉의원이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은 사업들의 시스템을 개편했다. 장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생 사업도 개편을 단행해, 대학교에 다니는 장학생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그들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주었고, 이들과 함께 교사회를 꾸렸다.

김 원장신부를 비롯한 교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요셉의원 내에서 장학생 미사를 함께 드리고 있으며, 매주 회합을 통해 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한 수준별 수학, 영어 등의 교육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교사들은 장학생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교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고등부 학생들은 졸업 이후 교사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필리핀 요셉의원의 장학생 공동체는 이처럼 성공적으로 한국의 주일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장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 형성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



+ 2024년 4월~5월 신규 후원 회원(9명)

- 김선진 ● 김정화 ● 문현일 ● 송영재 ● 신동은
- 익명 ● 정은숙 ● 정혜식 ● 최요안

+ 2024년 4월~5월 신규 후원 단체

- 참사랑모임회원일동

+ 2024년 4월~5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663명 ● 급식 953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4년 5월 현재)

- 진료 99,758명 ● 급식 491,541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4.04~05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카메룬 주교, 후원 미사 공동 집전하고 감사 인사 전달”

6월 11일 요셉의원 2차 방문해 후원 결과 안내



본원을 방문해 후원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임마누엘 다시 유팡 주교(앞줄 가운데)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앞줄 오른쪽)와 고영초 병원장(왼쪽), 박찬순 국성회 후원회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국성회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프리카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 임마누엘 다시 유팡 주교가 6월 11일 오전 11시 영등포 요셉의원 경당에서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함께 성 바르나바 축일 국성회 후원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서울대교구의 초청으로 지난해

에 이어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한 유팡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요셉의원과 국성회의 물적, 영적 지원에 감사사를 전했다. 유팡 주교는 “여러분은 성 바르나바처럼 우리 교구에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들”이라며,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의료와 영양학적 후원을 통해서 물적인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팡 주교는 미사가 끝난 뒤 국성회의 성경 지원에 대

한 현지 보고 동영상을 상영하고, 바피아 교구 내의 성경 읽기 캠페인이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한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유팡 주교와 국성회의 인연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메룬 바푸삼 교구에서 선교 중이었던 김지연 아가다 수녀(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가 국성회에 바푸삼 교구 내 교리 교사, 성경모임을 위한 프랑스어 성경 1,500권 지원을 요청했는데, 당시 바푸삼 교구장이 유팡 주교였다. 유팡 주교는 그해에 바푸삼 교구를 떠나 바피아 교구장으로 부임한 2년 뒤인 2022년에 김지연 수녀를 통해 바피아 교구 내 교리교사들과 각 가정을 위한 프랑스어 성경 1,500권 지원을 국성회에 추가 요청한 바 있다.

유팡 주교는 이번 방문 활동의 하나로, 바피아 교구 내의



국성회 후원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유팡 주교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국성회에서 전달한 성경을 받아 들고 기뻐하는 카메룬 신자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목센터 건립 후원금 확보를 위해 6월 9일 여의도 성당에서 후원 미사를 봉헌했다. 카메룬 교회는 인구의 40%가 천주교 신자이지만 열악한 경제로 인해 신부들이 사제관도 없이 매일 10여 개 공소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돌보는 등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곳 중 하나다. +

☞ 2020년 6월 12일 바푸삼 교구에 프랑스어 성경 1,500권 후원 (=1,500만 원), 2022년 8월 10일 프랑스어 성경 1,500권 2차 후원 (=1,560만 원)

[선교 현장에서] 칠레에서 온 사목 편지 – 푸엔테 알토 지역의 최동민 파스칼 신부

“언어가 서툴러도 진심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칠레 산티아고 푸엔테 알토 지역 신자들이 국성회가 지원한 스페인어 성경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척을 해준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성당에 나오지 않던 유족들은 공소 미사 때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을 때면, ‘서툴게 말을 했어도 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 진심은 전해졌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목 방향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한 번에 치유해주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고 각자가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해주셨듯이 저 역시도 아주 작은 일, 단 한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족한 언어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제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려는 그 마음은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져, 여전히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통하는 가족처럼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국성회 가족분들도 연약함 안에서 삶을 끌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 푸엔테 알토(PUENTE ALTO)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최동민 파스칼 신부(대전교구)입니다. 제가 사목하는 이곳은 산티아고의 외곽에 자리한 가난한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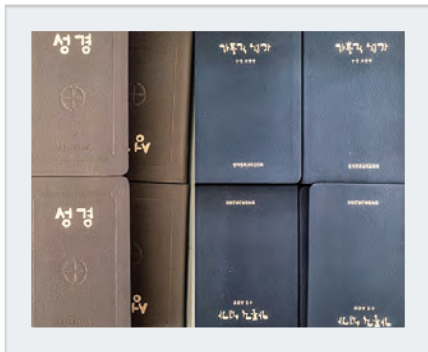
2023년 초, 4개월 정도 언어 공부를 하고 6월 초부터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목을 시작했는데, 처음 경험하는 생소한 언어이기에 사목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하여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마을에 장례가 나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고별식을 거행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죠.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저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시오.’ 그러고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하나씩 늘어놓으며 최선을 다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동양 신부가 와

☞ 2023년 8월 16일 최동민 신부에게 현지 신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300권 후원(약 1,400만 원)

[선교 현장에서] 국내 새빛공동체에서 성경, 성가집 지원 요청

“성경,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에이즈 감염인
들의 생활 쉼터
인 새빛공동체
에 전달한 성경
과 성가책.

찬미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김계숙 마르띠나 수녀입니다. 제가 일하는 새빛공동체에 하느님 말씀을 두루두루 알리고자 국성회에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새빛공동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감염인들의 생활 쉼터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은 감염인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 입소합니다. 이 입소자들이 쉼터의 삶을 통해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읽으며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돕고 싶습니다.

서너해 전 식구 한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건넨 성경을 통해 그가 편안하게 변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동성

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삶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빛쉼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새 삶의 출발점으로서 성경을 손으로 잡아보며, 우리 사회에서 거부된 사람으로서 음지에서 사는 그들의 영혼에 하느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귀 후원회에 성경지원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쉼터는 매월 신부님께서 오셔서 HIV/AIDS 감염인들의 월레미사(30~35명 참석)를 통한 만남을 갖습니다. 미사전례 때 사용하는 성가집이 너무 오래되고 페이지가 누락되어 새 성가집의 필요성이 불가피해서 성가집(가톨릭성가집) 또한 35권을 후원회에 지원 요청드립니다.

성경과 성가집이 갖추어지면 매주 하루 정해진 요일에 성경 봉독과 성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사람들만이라도 함께 성경을 통해 복음적인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국성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2024년 5월 13일 김계숙 수녀 드림

☞ 2024년 5월 24일 새빛공동체 입소자들을 위하여 신구약성경 10권, 가톨릭 성가집 35권을 지원했습니다.

+ 국성회 지원 내역(2024년 4월~5월)

☞ 05/24 김계숙 마르띠나 수녀(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에게 새빛공동체 입소자들을 위한 신구약성경 10권(360,000원), 가톨릭 성가집 35권(472,500원) 지원(총 832,500원)

05/24 손순심 안젤라 수녀(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에게 수도원 성경공부, 기도모임을 위한 신구약성경 15권 지원 (540,000원)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4년 4월~5월)

●강석철 ●강은영 ●강화정 ●고도원 ●고동현 ●고현수 ●고현주 ●곽순용 ●곽해숙 ●곽효민 ●구경모 ●구민영 ●김경준 ●김경희 ●김광자 ●김금재 ●김기연 ●김덕순 ●김동화 ●김만길 ●김명숙 ●김명신 ●김명희 ●김미현 ●김범준 ●김병희 ●김석주 ●김선옥



- 김성권 ● 김성중 ● 김수미 ● 김수현 ● 김여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숙 ● 김정연 ● 김정임 ● 김정화 ● 김진숙 ● 김진우
- 김태규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효섭 ● 김희수 ● 나삼균 ● 노미미
- 도성록 ● 류연자 ● 류지한 ● 류혜선 ● 문경호 ● 문순자 ● 민영진 ● 박금애 ● 박병윤 ● 박성하 ● 박세희 ● 박소향 ● 박수진 ● 박순자
- 박언빈 ● 박영훈 ● 박재우 ● 박지영 ● 박창희 ● 박춘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화영 ● 박효종 ● 배광익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현동 ● 서효리 ● 서희자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필숙 ● 손현채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양기라 ● 양영실 ● 양창호 ● 엄옥진 ● 엄지유 ● 오세형 ● 오소연 ● 오승웅 ● 오영남 ● 오영신 ● 위원량 ● 유승영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규성 ● 이금희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숙 ● 이상현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선 ● 이영희 ● 이용순 ● 이용애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임득 ● 이장순 ● 이재림 ● 아자악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주현 ● 이준호 ● 이중환 ● 이지윤 ● 이진수 ● 이학천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혜순 ● 이혜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순태
- 임옥란 ● 임진수 ● 임한미 ● 장민정 ● 장수진 ● 장이태 ● 장혜정 ● 전대영 ● 전명희 ● 전성인 ● 전소연 ● 전 숙 ● 전유민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은주 ● 정재숙 ● 정진영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성미 ● 조소연 ● 조주연 ● 조하영 ● 조현순 ● 주현수
- 지태근 ● 진수은 ● 최경의 ● 최두혁 ● 최명옥 ● 최영연 ● 최영자 ● 최종숙 ● 하금태 ● 하상옥 ● 한나진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주 ● 황현지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4년 4월~5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민재 ● 박우준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요안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후원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4년 4월~5월)

- 이숙자 ● 이영림 ● 정필연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4년 4월~5월
후원금 내역 : 10,768,000 원

2024년 7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4년 7월 9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 토빗기 12,19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7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006-300-085794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



식사 나눔 (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옷 나눔

시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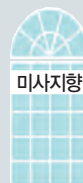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